



통권 제 193호

강남, 라 00943

2563  
2019

11

계  
율  
이  
야  
기  
처  
신  
에  
대  
한  
계  
율



살다보면  
커피한  
담긴  
인연  
잔에



함께만든  
독립운동의  
그림자  
밀정  
100년  
운동의  
어두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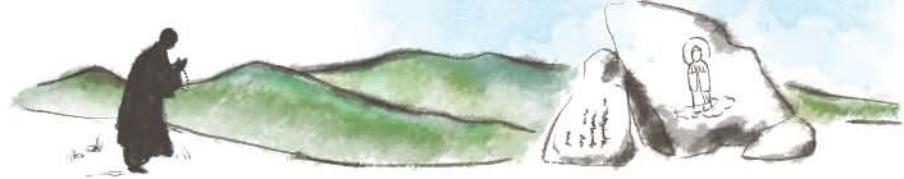
# 우드 다라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 일체를 본심으로 처리하라

모든 일을 망심<sup>妄心</sup>으로서 처리하지 말라.

반드시 본심<sup>本心</sup>으로서 처리할지니라.



# 위드 다르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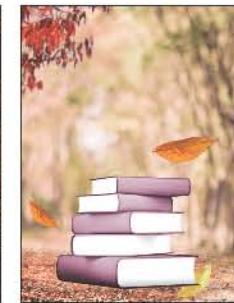
**다르마** 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 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 불교이야기 04

출가자의 계와  
재가자의 계  
화령 정사

### 디딤돌 60

나는  
기다립니다…  
지현 전수

### 걸망에 담긴 이야기 68

도약  
법일

2563  
2019

11

### 04 불교이야기

### 10 계율이야기

### 16 살다보면

### 22 향유

### 26 산책

### 28 아름다운 세상

### 32 마음의 등불

### 36 십선성취

### 40 함께 만든 100년

### 44 씨앗 한 알

### 48 사색

### 54 생활 속 식물이야기

### 58 특별기고

### 60 디딤돌

### 64 차향기

### 68 걸망에 담긴 이야기

### 70 독자기고 1

### 72 뜻 바루기

### 74 되짚어 보기

### 76 컬리링 만다라세상

출가자의 계와 재가자의 계  
화령 정사

처신에 대한 계율  
법경 정사

커피 한 잔에 담긴 인연  
이옥경

엄마찬스  
강동현

툭!  
김대곤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下  
묘원화 전수

가을밤의 단상  
목만중

친구<sup>親友</sup>  
덕현 전수

독립운동의 어두운 그림자 밀정...  
자성 전수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이 자리  
법상 스님

동유럽 여행기 1  
우연

잘라 내야 더 잘 산다 아이비-English ivy  
이태용

아버님께 올리는 마지막 편지  
박진성

나는 기다립니다…  
지현 전수

옹차의 유래  
김정애

도약  
법일 정사

사명대사 열반 409주기 추모대제  
여순애

변화관음<sup>變化觀音</sup>  
김재동

탐욕<sup>貪欲</sup>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 내가 사랑하는 계절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달은  
11월이다.  
더 여유 있게 잡는다면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다.

낙엽 져 흙몸으로서 있는 나무  
나무들이 깨금발을 딛고 선 등성이  
그 등성이에 햇빛 비쳐 드리난  
황토 흙의 알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황토 흙 속에는  
시제<sup>時祭</sup> 지내려 갔다가  
막걸리 두어 잔에 취해  
콧노래 함께 돌아오는  
아버지의 비틀걸음이 들어 있다.

어린 형제들이랑  
돌담 모퉁이에 기대어 서서 아버지가  
가져오는 봉송<sup>封送</sup> 꾸러미를 기다리던  
해 저물녘 한 때의 쿨풀한 시간들이  
숨쉬고 있다.

아니다 황토 흙 속에는  
끼니 대신으로 어머니가  
무쇠솥에 찌는 고구마의  
구수한 내음새 아스프레  
아지랑이가 스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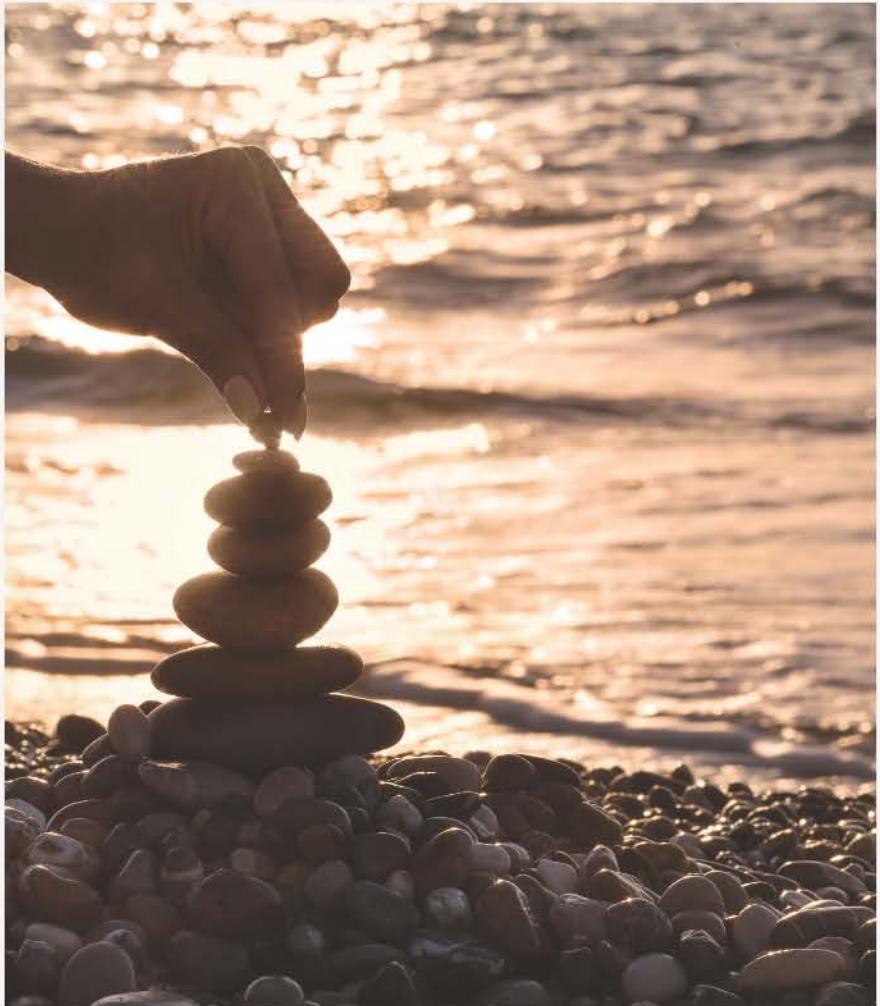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계절은  
낙엽 져 나무 밑동까지 드러나 보이는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다.  
그 솔직함과 청결함과 겸허를  
못 견디게 사랑하는 것이다.

- 글 : 나태주



출가자의 계와  
재가자의 계

화령 정사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주교



계는 불교도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교도가 되는가를 봅시다. 불교신자가 되려면 먼저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가 있어야 합니다. 삼보에 귀의한 사람은 모두 불교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불교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귀의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믿고 받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상가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믿고 따르며 공경하는 것이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신자가 되려면 먼저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계<sup>三歸戒</sup>를 받습니다. 삼귀계는 삼귀의계<sup>三歸依戒</sup>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삼보를 믿고 따르며 받들겠다는 결심이 서고 그 순간 불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승단이 미처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맹세만으로 출가를 허락받기도 하고 재가자는 불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정식 출가자는 구족계를 받아 출가승이 되고 일반 재가자는 삼귀의계를 받는 것만으로 불교도가 됩니다.

출가승은 세분하면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의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비구와 비구니는 아시다시피 성인남녀로서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은 승려입니다. 사미와 사미니는 아직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소년, 소녀의 출가자를 말합니다.

식차마나 式叉摩那, Śikṣmāṇa는 정학녀 正學女라고도 하는데, 정식의 출가자가 되기 전의 2년 동안의 견습기간에 있는 18세에서 20세의 여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혼여성이나 이혼한 여성의 경우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런 기간을 둔 것이며 만약 출산을 했다면 육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비구와 비구니는 모두 20세 이상으로서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은 출가자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의 불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분율(四分律)>이라는 율장에 따르면 비구는 구족계로서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받습니다. 스리랑카나 태국, 미얀마 등의 남방불교에서는 비구 227계, 비구니 311계를 구족계로서 받습니다. 사마와 사미니는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일반적으로 14세에서 20세 미만에 해당되는 미성년의 출가자입니다.

이들은 구족계를 받기 전에 십계+戒를 받습니다. 십계는 불살생계, 불투도계, 불음계, 불망어계, 불음주계의 오계에다가 화장을 하거나 장신구를 지니지 않는 불도식향만계 不盜飾香漫戒, 음악을 듣거나 춤이나 연극 등을 보지 않는 불가무관청계 不歌舞觀聽戒, 사치스러운 자리나 침상을 쓰지 않는 불좌고광대상계 不坐高廣大牀戒,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불비시식계 不非時食戒, 금은 등의 재물을 모으거나 받지 않는 불축금은보계 不畜金銀寶戒를 더한 열 가지의 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식차마나는 일반적으로 사미니에서 18세 정도가 되면 육법계라는 것을 받습니다.

육법계는 불음, 불투도, 불살생, 불망어, 불음주, 불비시식의 여섯 가지 법을 말합니다. 출가자들은 이렇게 세분되어 각각에 맞는 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가자는 삼귀계를 받는 이외에 불살생, 불망어, 불투도, 불사음, 불음주의 오계를 받습니다. 재가신도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가자처럼 까다롭고 많은 계율조항은 지킬 수가 없으므로 대체로 오계만 지키도록 했습니다. 재가자도 구분하면 남성신자인 우바새와 여성신자인 우바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오계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공통되는 것입니다.

재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오계를 보면 모두가 일상생활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은 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욕심내고 거짓말을 하여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등은 다 우리 인간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정신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계행이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차계 酒戒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해 놓으신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 자체가 악을 면추

게 하는 것은 성계戒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하여, 필요에 따라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차계라 합니다. 차계는 성계와 비교하여 가벼운 것인데, 예를 들어 살생은 계 조항이 있든 없든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성계로 제지하는 것이지만, 음주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계로써 제지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고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출가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약으로써 할 수 없이 마셔야 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때가 아닌 때는 먹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병이 났을 때 건강 회복을 위해서라면 때가 아닌 때에 먹는 것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상황에 따라 열고[開] 닫는다[遮] 고 하여 개차법開遮法이라고 합니다.

출가자에게도 오계가 있는데 출가자는 무조건 음행을 금해야 하므로 불음계不飮戒이지만, 재가자에게는 부부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불사음계不臠淫戒가 적용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출가자는 절대로 음행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재가자는 부정한 성관계를 금하는 불사음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가신자는 하루 동안 출가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팔재계八齋戒라고 합니다. 팔재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미, 사미

니의 십계에서 불축금은보계를 제외하고 불도식향만계와 불가무관청계를 하나로 묶어 여덟 가지로 한 것입니다. 또 이 날만은 부부간에도 성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재가자의 불사음계가 아니라 불음계로 대체하여 팔재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팔재계는 보통 한 달 가운데에서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의 6일 동안 지키는데 이것을 육재일이라고 합니다. 또 육재일을 1일, 8일, 14일, 15일, 23일, 30일로 치기도 하고, 이 중에서 4일만 택하여 팔재계를 지키는 사재일도 있습니다.

재가신자는 이처럼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계를 받고 불교도가 되며, 여기에 오계를 받아 지킴으로서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육재일에 팔재계를 지킴으로써 재가신자도 한 달에 6일 동안만은 출가자와 같은 엄격한 생활을 함으로써 청정한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





##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누구든 충고를 하면 듣기 싫어한다. 조언을 해도 잔소리나 간섭으로 여기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고나 조언을 좀처럼 하지를 않는다. 그러나 불가<sub>佛家</sub>에서는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윤장에서 정하고 있다.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는 계율이다. 이를 불수간계<sub>不受諫戒</sub>라 한다.

불수간계<sub>不受諫戒</sub>는 비구가 계율을 어겼을 때, 다른 비구가 충고하여도 상대를 무시하고 그 충고를 따르지 않을 때에 해당하는 죄이다.

『사분율』에서는 불수간계<sub>不受諫戒</sub>라 하지만, 『근본유부율』에서는 불공경 학처<sub>不恭敬學處</sub>라고 있다.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르침, 규칙’이라 번역할 수 있다. 상대의 충고를 따르지 않으므로 상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 ‘불공경<sub>不恭敬</sub>’이라 한 것이다. 윤장에 따라 계戒라는 말 대신에 학처<sub>學處</sub>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 학처는 가벼운 계를 가리킨다. 불수간계의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코삼비국의 코살라 동산에 계실 때, 천타 비구가 계를 범하려 하니 비구들이 이를 충고하였다. “그러한 뜻을 마음에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나 천타 비구는 충고를 듣지 않고 결국 계를 범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어떤 비구가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면 바일제가 되느니라.”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천타 비구는 평소에도 상좌 비구가 법을 설하거나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중에 끼어 들어서 다른 말을 하거나 윗사람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일부러 하고, 경외심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예의가 없고 질서도 없는 비구였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수행이나 생활의 청규<sup>淸規</sup>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상대가 말하는 중에 끼어들지 말자. 상대의 말이 끝나면 자기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말하는 데에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서로 충분한 시간을 차례로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이 대화의 기법이고 기술이다. 둘째는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던지지 말아야 한다. 욕을 보이거나 골탕 먹이려는 의도에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질문에도 예법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알면서 일부러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를 무시하듯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상좌를 테스트 하듯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다. 셋째는 경외심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배려와 존중, 양보하는 자세는 길리야 한다. 수행자의 기본자세이자 조건이기 때문이다. 말은 표업<sup>表業</sup>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불수간계를 불공경학처라 부르는 이유다.

### 남의 큰 죄를 덮어 주지 말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충고를 거역하면 바일제가 된다고 하였는데, 반대로 충고를 꺼려하여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 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은 이것도 죄가 된다고 하였다. 이를하여 복타추죄계<sup>複他蟲罪戒</sup>라 한다. 남의 큰 죄를 덮어 주지 말라는 계다. 충고를 거역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충고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복타추죄계<sup>複他蟲罪戒</sup>의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발단타 비구가 어떤 비구와 매우 친숙하였는데, 발단타 비구가 자주 계를 범하였는데도 이를 숨겨 주었으므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발단타 비구와 크게 싸우게 되자 화가 나므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폭로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의 큰 죄를 감추어 주면 바일제가 되느니라.”

친할 때는 간을 껴내주고 틀어질 땐 칼을 껴내는 것이 중생이다. 말에는 비밀이 없다. 화근<sup>煩根</sup>만이 따른다. 설화<sup>說法</sup>가 다른 것이 아니다. 말로 인한 화는 그 피해와 상처가 크고 깊다. 따라서 말을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 신언<sup>信言</sup>은 근신<sup>眞身</sup>만큼 중요하다.

### 다른 비구들을 걱정시키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겁을 주면 두려워한다. 협박이든 공갈이든 거짓된 정보든 간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범죄가 그러한 유형이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 고민은 수행에 큰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공연히 다른 출가자에게 겁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계를 정하였다. 의뇌비구계<sup>意惱比丘戒</sup>다. 이 계가 제정된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17군 비구[나이 어린 17명의 비구]가 6군 비구[사악한 6명의 비구]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여야 사선정<sup>四禪定</sup>에 들어서 공<sup>空</sup>과 무상<sup>無相</sup>, 무원<sup>無願</sup>의 경지에 들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네 가지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6군 비구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 이미 바라이죄[무거운 죄]를 범했다.”

17군 비구들이 이 말을 듣고 다른 여러 비구들께 물으니 “그 같은 물음은 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므로 안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17군 비구들이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므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를 걱정스럽게 하면 바일 제가 되느니라.”

사실이 아닌 거짓된 일로 상대를 걱정하게 만들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무의<sup>無義</sup>를 위해서 다독여주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무애<sup>無愛</sup>이다. 두려움을 없애면 장애는 없다. 장애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고민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세상만사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근심, 고민이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고민에 빠져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라도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다른 이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도 말자. 수행과 실천으로 모두가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한다.▲



## 커피 한 잔에 담긴 인연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가비를 볶을 때는 과일이나 꽃향기가 섞여 나오고,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는 은은한 향을 내면서 고소한 향이 납니다. 연하게 볶으면 향은 살아나지만 맛이 복잡해지고, 진하게 볶으면 쓴맛이 짚어집니다. 가비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내리는 것이며, 향이 천천히 퍼지도록 안내하며 적셔야 합니다.”

커피 하면 영화 <가비>에 나오는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 '파냐'의 대사와 함께 1986년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7개 부문을 휩쓴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떠오른다.

20세기 초반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지대 케냐의 나이로비를 무대로 한 이 영화의 압권은 최고급 커피가 생산되는 마사이와 킬리만자로의 멋진 풍광이다.

이와 함께 커피농장이 어떻게 일구어지고, 커피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커피의 재배·수확·가공·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하얀 커피 꽃이 피고, 커피 체리가 맷하고 익어가는 과정, 앙두처럼 빨간 커피 체리를 일일이 손으로 수확하는 순박한 흑인 노동자들의 모습, 물을 이용해 커피 체리를 벗겨 씻어내는 워시드 washed 가공 방식, 원두를 부대에 담아 수출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흥미롭다.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을 가득 메운 검은 들소 폐, 초원을 누비는 기린의 무리, 폐를 지어 날아오르는 홍학의 화려한 군무, 작고 빠른 영양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 등 목가적인 풍경에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가 잔잔하게 흐르는 이 영화의 배경 아프리카 캐나를 대표하는 커피는 캐나AA와 에스테이트 캐나로, 묵직한 바디감과 오묘한 과일 향, 산뜻한 신맛의 조화가 뛰어나 세계적인 최고급 커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왕 시작했으니 커피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기로 하자. 커피는 원종(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등)이나, 생산지, 추출 방식(터키식 침출 법, 핸드 드립, 기계 드립, 모카포트, 프렌치 프레스, 싸이 폰 등), 첨가물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게 구분되고 맛에도 차이가 난다.

커피 메뉴의 대부분은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원두커피, 카페라테를 기본으로 만들어진다. 에스프레소는 기계를 이용해서 고온·고압으로 단번에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적고, 맛과 향이 진하다.

이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커피의 대명사와 같은 아메리카노가 되고, 우유 거품을 얹어 계피나 코코아 가루를 뿌리면 TV 드라마의 거품 키스로 유명세를 치른 카푸치노, 초콜릿을 더하면 카페모카, 에스프레소와 뜨거운 우유를 1:4로 섞으면 카페라테가 된다.

아메리카노에 차가운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비엔나커피는 커피의

쌉싸래한 맛과, 휘핑크림이 녹으면서 진해지는 단맛이 포인트. 휘핑크림을 젓지 말고 음미해야 한다. 에스프레소에 점찍듯이 데운 우유를 한 스푼 살짝 올리면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데운 우유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얹으면 라테 마키아토, 라테 마키아토에 캐리멜 소스를 첨가한 것이 캐리멜 마키아토이다.

에스프레소에 휘핑크림을 얹으면 마키아토와 비슷하지만 단맛이 강한 콘 파나가, 긴 유리잔에 에스프레소를 담고 얼음과 설탕 시럽을 얹으면 아이스커피의 일종인 카페 프레도가, 초콜릿 시럽을 뿌리고 우유 거품을 얹으면 카페 토리노가 만들어진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더하면 멋스러운 아포가도가 된다.

또 다른 추출 방식으로 핸드 드립 커피와 더치커피를 들 수 있다. 핸드 드립 커피는 분쇄한 커피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내리는 테 커피 고유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더치커피는 커피에 찬물 또는 상온의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추출하는 과정이 눈물 같다고 하여 '천사의 눈물'이라고도 하고, 숙성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커피의 와인'이라고도 한다. 커피의 쓴맛을 없애고 좋은 맛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맛과 향으로 우리 삶에 여유를 더해주는 커피의 낭만과 달리 커피의 역사는 착취와 수탈의 역사라는一面을 갖고 있다.

커피 재배는 사람 손이 많이 가고 혹독한 노동을 필요로 한다. 흑인



노예의 가혹한 노동으로 만들어진 유럽의 커피가 '니그로의 땀'이라 불렸으며, 지금도 여전히 '커피 벨트' 지역의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커피는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이고, 가격도 그리 싸지 않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커피 생산국은 가난한 나라가 많다. 지나치게 낮은 생산 원가 때문에 어른들은 물론이려니와 어린이들도 노동 현장에 내몰린 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예가 허다하다. 중간 매입상과 다국적 기업들이 중간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제값을 지불한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정무역이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사업자의 상생을 목표로, 국가와 기업 등이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하는 무역을 말한다. 차 폐고 포 폐고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자면 적정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노동 착취를 막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돋는 착한 소비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9월 '아름다운 가게'에서 공정무역으로 아시아 지역의 수공예품을 수입·판매를 시작해 커피·코코아 등으로 그 폭을 넓혀 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만물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선을 존중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거친 땅을 일궈 비옥하게 하고 나무를 심어 살찌우며 잘 익은 커피 체리를 일일이 손으로 따고 손질해 한 톨 한 톨의 커피콩으로 생산해내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한 잔의 커피로 우리 앞에 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졌을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인연 또한 어느 한 가지라도 허투루 여길 수 없다.

아름다운 동행이 커피 꽃처럼 활짝 피어나 튼실한 커피콩을 맺고, 향기로운 한 잔의 커피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수고가 만들어낸 따뜻한 인연을 마시고 있다. ♡





외모로 보면 살림의 고수로 어떤 요리든지 뚝딱 만들어 내는 주부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엄마가 화나 시거나 나한테 서운한 것이 있어서 요리를 안 한다고 하면 무조건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빈다. 물론 대체로 자식 된 도리를 안 한 나의 잘못이 더 크니까 빨리 사과를 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편찮으셨다. 평소에 내가 솜씨가 없어서 죽도 못 끓이면 남편이 나서서 죽을 끓여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남

편이 장기 출장으로 집을 비웠을 때 앓아 누우셨다. 병원에 가셔서 링거를 맞고 집에 오셨는데 내가 죽조차 못 끓이니 죽 집에서 잘 잡수는 죽을 배달시키고 우리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그래도 밥을 먹어야했기에 엄마가 해놓으신 반찬으로 밥을 먹다가 그마저도 바닥이 나버렸다. 주변에 반찬 가게가 있었는데 그 반찬 가게 반찬은 입에 맞지 않았다.

엄마의 반찬 솜씨는 우리의 입맛을 고급으로 만들어 놓았다. 보고 배운다고 하는데 어찌 된 까닭인지 나는 언제나 2%부족한 맛이 나곤 했다. 그냥 보고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다잡아서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양념의 양을 못 맞추고 간도 잘 못 맞춘다. 어떨 때는 엄청 짜고 어떨 때는 싱겁다. 놀라운 것은 나는 다르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나한테는 땀 맞는데 싱겁다고 하고 짜다고 한다. 남편은 맛이 이상하면 내가 만든 것이라고 단정적이 되곤 한다.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우면 “당신이 했어요?” 한다. 그 정도로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도 간이 약간씩 이상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맛이 있다.

죽 집에서 배달한 음식만 드셨던 엄마는 급기야 오빠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다. 새언니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잡수고 싶다는 것이었다. 따순 밥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는 밥도 따순 밥인데 도대체 어떤 밥

이 따순 밥인지 모르는 나는 작정을 하고 엄마 흉내를 내보기로 했다. 소고기 무국도 끓였지만 맛이 없다고 혼났다. 미역국을 끓였는데 미역 풋내가 난다고 하신다. 누룽지 끓여서 드렸더니 그것은 잡수신다. 김치 넣고 낙지 넣고 끓인 것이 잡솟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죽집에서 배달해서 드렸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음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곰국 잡솟고 싶다고 하셔서 언니한테 물어 보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서 호기롭게 정육점에 갔다. 언니가 어떤 것을 사라고 해서 달달 외서 주문을 하고 있었는데 내 뒤에 온 나보다 젊은 주부가 나한테 곰국을 끓이는 법을 물어 보았다. 속으로 당황을 했지만 언니한테 전화로 배운 것을 술술 말해 주었다. 단 한 번도 곰국을 끓여보지 못한 자의 설명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그 주부는 고맙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엄청 많이 찔렸다. ‘사실은 나도 오늘이 처음 이에요.’ 하고 싶었지만 내 외모에서 살림에 능숙한 선배 주부를 느낀 그 주부의 신뢰감을 깨고 싶지 않은 나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얼른 뼈를 사서 집으로 왔다.

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좀 이상했다. ‘정말 쉽다고’ 한 말을 그냥 믿은 내가 잘못이었다. 폐런 물이 나오면 버리라고 했는데 시커멓기도 하고 벌겋기도 한 물을 버려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몇 번을 해도 물은 내가 판단이 안 될 색이 되었다.

도저히 안 돼서 “엄마 찬스”를 쓰기로 했다. 혼자 해서 당당하게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시는 데로 몇 번의 물 버림이 있은 뒤에 갖은 약재를 넣고 당당히 곰국을 끓였다. 기름을 걷어 내고 불을 조절하면서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고 산 것 같아서 미안했다. 바깥으로 돈 벌려 다니기만 했을 뿐 집안 살림은 거의 모르고 살아 온 것이 어리석었다.

엄마가 편찮으실 때 입에 맞는 것을 해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편찮으신데 잘 못 잡수신다는 소문이 멀리 언니한테도 전해져서 언니가 엄마한테 요리를 해 주기 위해서 급하게 우리 집으로 왔다.

어찌나 맛이 있는지 언니가 해 준 음식을 엄마랑 나랑 허겁지겁 먹었다. 언니가 하는 것도 열심히 보고 배웠다. 그 후로 나는 내가 요리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 거의 시험 공부 수준으로 하고 있다.

엄마찬스를 자꾸 쓰는데도 엄마가 기쁘게 가르쳐 주신다. 자꾸 하다 보면 엄마의 솜씨에 가닿지 않을까 싶어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



이제 눈치를 보며

붉음이 섞인 잎을 내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을은 걸음을 옮긴다.

다 잊고 지우고

계절의 이유로 숲의 옷을  
갈아치우는 가을에는

솔솔한 바람이 이것들을 터치하며  
가볍게 지날 때 한결음 한결음  
계절의 깊이에 빠져든다.

툭! 하고  
떨어트려야 하는 마음속에  
내것 하나도 있는듯 하다.

툭! 테구르르

발 앞에 떨어지는  
도토리 하나엔 윤기나는  
이 가을이 품고 있던 시간이 있다.



##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묘원화 전수  
벽룡사



**발표** 김열권 (마하위빠사나 명상원 원장)

**토론** 김재성 (자애통찰 명상원 대표,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

### 부처님의 재가 신도들

법구경에는 재가 신도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많다. 벳사 공이었던 바히아는 배가 침몰 후 자기 동료선원들의 죽음에 무상을 느껴 부처님을 찾아뵙고 바로 그 자리에서 6근 관찰로 아라한이 되었다.

-법구경 102-

장관이었던 산따띠도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이 죽자 무상을 느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로 아라한이 되었다. -법구경 142-

“비록 그가 화려한 장관의 옷을 입었어도  
그의 마음이 고요하고 번뇌로부터 벗어났고  
감정을 다스려 도의 관찰을 이루었고  
청정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에 대한 원한심을 버렸다면  
그는 브라흐마나이자 사마나이자 빅쿠이다.”

- 법구경 142 -

서커스 배우 육가세나는 곡예 중 오온 관찰로 아라한이 되었다.

- 법구경 348 -

“오온에 대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버려라.  
윤회의 바다를 멀리 건너서  
네 마음을 오온의 모든 깨마(업)로부터 청정히 하면  
태어남과 늙음을 다시는 받지 않으리라.”

- 법구경 348 -

### 마지막 제자 수밧다

“...수밧다여! 내 나이 29세에 세상을 버리고 무상정등정각을 얻기 위해 사문이 되었다. 내가 사문이 된 이래 5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나의 이 가르침(4성계 8정도) 밖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이르는 지혜수행(위빠사나)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었느니라. 다른 가르침에는 진정한 지혜를 얻는 성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비구들이 이 가르침(8정도)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간다면 이 세상에서 아라한은 영속하리라.” - 디가니까야 16 -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발심하여 호흡관찰 수행 결과 수반다는 부처님 생존 시 마지막 아라한과를 성취한 제자가 되었다.

이렇듯 니까야를 살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시에는 출기와 채기를 막론하고 깨달음에 이른 제자들이 많았다. 설법을 듣고 실천하는 것만으로 빠르게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 부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원통하지만, 부처님 후대에 태어나고 요즘처럼 자료가 전 세계에 공개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났으니 복이 많다고도 할 수 있겠다. 아무리 상이 잘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허기를 면할 수 없는 법이다. 자신에게 인연 닿는 좋은 수행법을 정해서 열심히 정진하자.

### 미얀마와 태국의 테라와다

이어서 김열권 원장은 미얀마의 마하시 센타와 파우 센타, 디파마센타의 수행법과 여러 사야도(큰스님)들을 소개하고, 태국의 아짠 문

과 아짠 차, 아짠 봇다다사의 수행담과 일화, 수행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또 태국처럼 우리나라로 기업이나 학교에서 봇다명상을 실행하여 온 국민이 명상의 혜택을 받고, 불국토를 이루기를 발원했다.

이번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초기불교와 테라와다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 포럼 장에 모인 참석자들 중 많은 분들도 생소해 하면서도 경청하고 놀라워하고 납득하는 모습이 가슴에 담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틀림이 아닌 다른을 인정하는, 우리 존재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려려고 하니 관념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재를 보고, 느끼고, 알고 하여 분별을 버려야 하나보다. 이미 포럼 장이 이러한 자리가 아니던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표현 함에도 존중과 인정 그리고 감사가 함께 하는 자리. ━



## 가을밤의 단상

목반중(睦萬中)

1727~1810

조선후기 태산현감·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

聞禮庭前聽說親  
奉恩寺裏出遊頻  
餘生孤露頭成雪  
此地斜陽淚滿巾  
欲訪前塵無老宿  
紙殘遺墨記壬辰  
躊躇重繞東門柱  
古樹悲風吹向人

문례정전청설친  
봉은사리출유빈  
여생고로두성설  
차지사양루만건  
옥방전진무로숙  
지잔유묵기임진  
주저중요등문주  
고수비풍취향인

예를 배우던 뜰 앞에서 선친 말씀 직접 들으니  
봉은사에 자주 가서 공부했노라 하시었네  
부모님 여의고 홀로 남은 이 목숨 머리가 온통 센 채  
바로 그곳에서 지는 해를 보노라니  
눈물이 수건을 적신다  
당시의 일 묻고자 해도 연로한 승려가 없고  
그저 임진년이라 쓰인 유묵만 남아 있구나  
머뭇머뭇 동쪽 문 기둥을 자꾸 배회하노라니  
오래된 나무에서 서글픈 바람이 불어오누나

-『여와집(餘窩集)』권5 中

「선친이 젊은 시절에 봉은사(奉恩寺)에 자주 왈래하며 공부하였는데 절의 누각 동쪽 두 번째 들판의 가장 높은 곳에 성명이 기록되어 있고 아래에 '임진년 중추라고 써여 있었다. 지금 헤아려보니 72년 전인데도 묵적이 완연 하기에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며 썼다. [先君子少日數往來肄業於奉恩寺。寺樓東邊第二樑最高處有題名。下方書以壬辰仲秋。計今七十二歲。墨蹟宛然。感泣有述。]」

목만중이 58세가 되던 1784년에 봉은사를 방문하여 지은 시이다. 저자는 어릴 적에 부친 목조우(睦祖禹 1693~1756)에게 교육받으며 부친이 젊은 시절 봉은사에서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그 기억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저자를 그 공간으로 이끈다.

사찰 경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28년 전에 세상을 떠난 선친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본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당시 이곳의 선친을, 저자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젊은 시절 선친의 모습으로 치환해 보지만 당년 선친의 모습은 아니다. 당년 선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이가 혹 있을까 싶어 찾아보지만 칠십여 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선친의 흔적을 찾아다닌 저자에게 72년 전 선친이 남긴 필적이 눈에 들어온다.

단순히 성명과 기록 시기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지만, 꿈에 그리던 이름과 익숙한 필적에 반가운 마음이 월칵 쏟아진다. 그 완연한 목적을 보니 이제는 희미해져버린 선친의 모습이 불현듯 선명하게 다가오는 듯한 착각마저 안다. 임진년 중추 어느 날의 환한 달빛과 그 아래에서 낭랑하게 글을 읽는 서생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다.

당시 이곳의 선친뿐만 아니라, 선친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주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인다. 차마 발길을 멎 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를 잃게 되면 처음에는 그와 공유했던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슬퍼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 그 공간에 다른 기억들이 차면 어느덧 그곳에서의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려 해도 쉽사리 떠올려지지 않는다.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가 전부였던 공간에 이제는 그가 없다. 소중했던 사람이기에 그가 떠오르는 것도 고통이고 그가 떠오르지 않는 것도 고통이다.

이제는 희미한 그의 모습을 떠올리다 어릴 적 어렵잖은 기억의 한 자락을 뒤적여 봉은사에 간 것도 그런 이유였으리라. 봉은사에는 온통 선친만 존재했고 선친의 묵적이 있기에 반가웠다. 허나 눈 앞에 있는 것은 결국 한 그루 고목과 저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부는 처연한 바람 한 줄기뿐이었다. 귀뚜라미가 심화를 듣는 가을밤에 옛 사진들을 보다가 문득 감회에 젖어 몇 줄 끄적여 본다.▲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강만문 연구원

####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필자에겐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입니다. 살림만 하는 친구도 있고, 과수농장을 운영하는 친구, 직장 생활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다 자라서 제 갈 길로 가고 지금은 배우자와 둘만 남게 되니 허전한 마음들이 밀려오는가 봅니다.

교화를 하면서 바쁜 일정에 주위의 친구들은 저에겐 또 다른 의미로서 큰 힘이 됩니다. 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을 통해 저 자신을 새롭게 봅니다. 항상 나의 신분과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제게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지식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 다른 장소에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따뜻한 친구들입니다.

친구! 무척이나 다정하고 편안한 단어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의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은 서로 가끔 전화해도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고, 어색함이 없으며 거짓과 허세, 꾸밈마저도 없습니다.

속상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들을 모두 다 들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서로 공감을 해주고,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고, 또 안타까워해주고, ‘나도 그랬어.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라고 말해줄 때는 쌓였던 감정들이 녹아내립니다. 속은 후련하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절로 풀립니다.

친구들은 가끔 우리를 학창시절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아침 등굣길에 한 곳에 모여 같이 교문으로 들어가고, 점심시간에는 같이 도시락을 나눠 먹고,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서로 빌려주고, 수업이 끝나면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오곤 했습니다. 시험공부 할 때는 친구 집에 다들 모여 공부하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사회로 나오면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요즘은 서로 마음이 통했는지 자주 전화도 하고 얼굴도 종종 봅니다. 만나면 반갑기만 합니다. 서운한 말을 하는 친구도, 짜증내는 친구도 없습니다. 서로를 마음 깊숙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친구들은 힘듦과 결점, 단점을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편이 되어주는 친구들이 있어 마음은 한층 여유롭습니다.

아마도 친구들 모두가 좋은 인연인 듯합니다. 좋은 인연이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의 인연이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친구들로 남아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만큼 저 역시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조금의 숨김도 없는 사이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따뜻한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행운입니다.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



# 독립운동의 어두운 그림자 밀정...

자성 전수  
법성사



100년 전 봄… 나이, 성별, 직업, 종교와 상관없이 한마음으로 외쳤던  
대한독립만세!!!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에도 굴하지 않고 만세소리는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무단통치로는 점점 거세지는 독립운동을 막을 수 없었던 일본은 문화통치라는 명분하에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밀정이라는 반민족적 집단을 양성하여 악랄한 수법으로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정보수

집, 체포, 분열 등 독립운동을 와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국을 버리고 가족, 친구, 동료들을 팔아먹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면 안되는 일을 했던 밀정들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김복 본명은 김규홍… 김규홍은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설립한 사람이지만 상해 임시정부를 파괴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회유하는 임무를 맡고 그 댓가로 일본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던 밀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건국훈장을 받음)

일본의 타겟으로 끊임없는 암살 위험에 빠져있던 김구 선생님과 7년 동안 곁에서 동거동락했던 김구 선생님의 경호부대원 한태규…

한태규는 김구 선생님의 모든 행적들을 일본에게 전해주는 밀정이었습니다. 한태규가 일본의 밀정임을 알고 있는 조선여성을 살해한 것이 들통이나 밀정으로 확인되어 처단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에게 매수되어 독립운동 주요 인사들의 비밀회의가 있던 남목청사건때 김구 선생에게 총을 쏜 이운환…

의열 단장인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동태를 살피고 의열단의 정보들을 누설한 의열단원 김재영…

일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임시정부만큼 탄압의 대상이 된 무력투

쟁의 선봉장인 의열단에도 밀정들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독립운동이 좌초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일본에게 많은 돈을 받고 동지들의 정보를 팔아 혼자만의 편안함을 누리며 산 민족의 반역자.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음)

청산리 전투를 이끈 김좌진 장군의 비서인 이정... 김좌진 장군의 최측근 참모이기에 많은 정보를 알수 있었고 군자금 등 중요 기밀들과 독립군들의 인상 착의까지 상세한 정보들을 일본에 팔아넘긴 밀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군자금의 밀고는 독립운동가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악한 행위중의 하나였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일본이 두려워하는 독립군의 명장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의 주위에도 밀정들이 숨어들어 감시와 많은 정보들이 일본에게 들어갔다는 사실들이 문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이토히로부미 암살에 함께한 거사동지 우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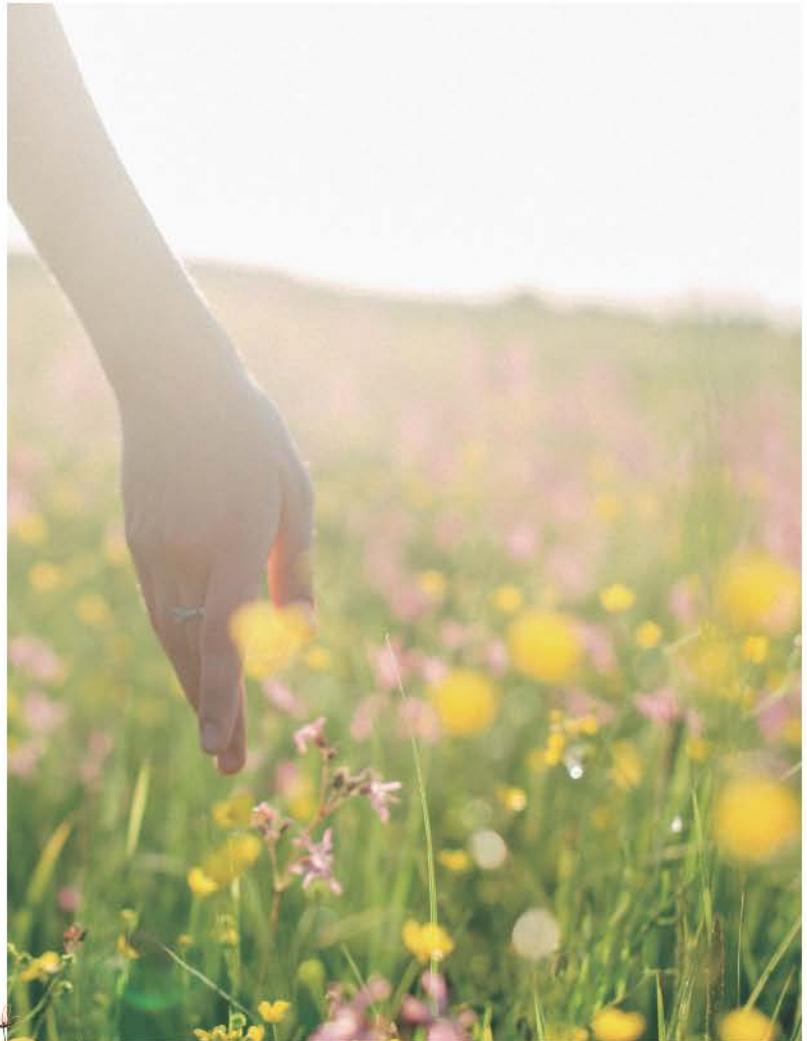
안중근 의사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지만 우덕순은 3년의 옥고를 치룬 후 변절하여 상해 조선인민회 회장을 맡으면서 일본의 앞잡이로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와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나라와 동지를 팔아먹은 댓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최고의 향락을 누리며 산 밀정들의 대부이자 민족의 배신자 우덕

순... 이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밀정의 수만 895명... 드러나지 않은 조직이기에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대한의 독립을 막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일본의 꼭두각시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곳곳에 숨어있었는지 가늠해 봅니다.

해방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름 밀정....

3.1운동 100년, 임시정부 100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기습 아픈 역사속의 민족행위와 반민족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명하고 더 이상 다음 세대에는 잘못된 흔적들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끊임없이 오고 가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시간 동안에도 많은 것들이 흘러오고 흘러가고 하네요. 새벽부터 새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지금은 아침보다는 많이 잦아들었네요. 아침에는 창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제법 추워 걸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벗어도 될 정도로 포근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는 종종 창 밖에서부터 들려오곤 합니다. 창 밖의 초록색 목련꽃잎은 바람에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고양이도 한 번 왔다가 가고, 저 멀리 사람들 발자국 소리도 스쳐 가네요.

조금 전부터는 지난 달 공사했던 사장님께서 마무리 작업 못한 것이 있다고 오셔서는 무슨 기계를 작동시키며 열심히 작업 중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 앞으로 왔다가 가곤 합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지요. 사람들도 오고 가고,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왔다가 갑니다. 사건이나 일들도 왔다가 가고, 성공이나 실패라고 이름 붙여진 많은 것들도 오고 갑니다. 삶과 죽음도 왔다가 가고, 우리 몸도 건강했다가 병약해지기도 하고, 생각도 계속해서 오고 가고, 감정도 끊임없이 왔다가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는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목전에서 바라보며 머물러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마치 셀카봉을 들고 세계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를 가서 어떤 사진을 찍든 언제나 셀카봉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말

이지요. 주변의 풍경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셀카봉 안에는 언제나 내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라는 매 순간의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늘 한결 같이 항상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셀카봉의 중심에 내가 있듯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가고, 내 삶 위로 수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변화 속에서 변함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인연도, 장소도, 생각도, 감정도 다 변하지만 변화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시끄럽게 오고가지만, 온갖 변화무쌍한 요동을 일으키지만 그 모든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있음은 언제나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성공한 삶도 지나가고 실패한 삶도 지나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의 있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현존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 어떤 것도 그저 이렇게 있을 뿐이지 성공적이거나 실패한 것으로써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것들은 다만 우리의 기억과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관념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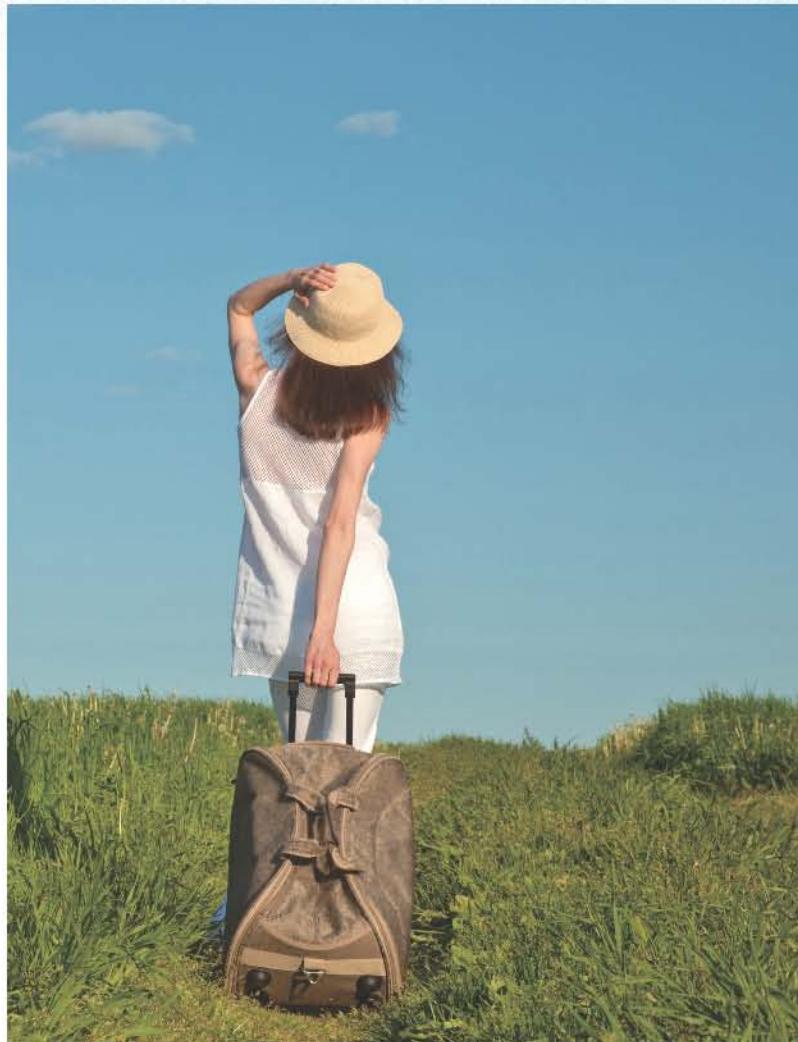
바로 지금 여기라는 목전의 당처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저 이대로일 뿐입니다. 아무런 개념도 해석도 불일 수 없는 것이지요.

컴퓨터 화면에 멋진 그림이 있을지라도 그 안의 하나 하나의 화소를 보면 그저 하나의 단순한 점인 것처럼 말이지요. 단지 그 점이 이어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때만 잘 그렸거나 못 그린 그림일 수 있을 뿐, 그 점 하나하나는 분별 없는 있음일 뿐입니다.

우리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매 순간 순간 당처를 직심하여 곧 바로 분별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모든 목전의 현실이 그저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해석 되지 않는 순수한 존재의 진실이 이렇게 매 순간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공항에 들어서자 문득 노래가 생각났다.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로 시작되는 ‘공항의 이별’이라는 노래다. 1970년대 문주란이 불러 공전의 히트를 쳤었다. 아무래도 공항은 만남 보다는 이별이 더 어울리는 장소인 것 같다.

노래의 상념도 잠시, 불 꺼진 탑승구 앞은 마치 텅 빈 무대처럼 썰렁했다. 김해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탑승구 앞에서 3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그리고 11시간 50분을 날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니 현지 시간은 오후 2시 50분, 한국 시간은 밤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사이에 낮과 밤은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 서둘러 공항을 빠져 나와 준비된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시야에 잘 정리된 넓은 농토가 나타나고 그 사이로 풍력 발전기가 줄지어 서서 거대한 바람개비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뮌헨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 찰쯔부르크로 향했다. 찰쯔부르크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도시로 알려져 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70년대 고등학교 시절, 전교생이 단체 관람을 했던 영화이다. 40여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전설로 남아 있다.

찰쯔부르크에 도착한 우리는 시가지 중심으로 흐르는 잘짜르강 마



카르트 다리를 건넜다.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나뉘었고, 우리는 구시가지 안으로 들어갔다. 시내 중심가에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100년 전의 건물들이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지금도 관공서나 은행 건물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니 놀라웠다. 게트라이데 거리를 걸었다. 짤쯔부르크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라 한다.

중세부터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글자 대신에 독특한 철제 문양의 간판을 걸면서 부터 생겨난 거리라고 했다. 루비통, 맥도널드 등 유명 매장에도 어김없이 철제 문양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길의 중간 지점에 모짜르트 생가가 있었다. 노란색 4층 건물이었다. 그는 태어나서 17년간 이곳에서 살았고, 이런 시절의 많은 작품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집 앞에는 이미 여행자들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슬며시 눈을 감고 모짜르트 교황곡 40번을 머릿속에 떠 올렸다. ‘따라라 따라라, 땃따 따라라~~~~’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이 기억의 저 너머에서 온몸으로 전해 왔다.

마치 모짜르트가 집 창문을 열고 멀리서 찾아온 여행자들을 향해 손이라도 흔들어 줄 것만 같았다. 한 천재 음악가의 인생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세계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다시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뜻밖의 광장이 나타나고 맞은편에 짤쯔부르크 대성당이 보였다. 성당 정문에는 네 개의 동상과 세 개의 청

동문이 있었다. 중앙의 두 동상은 검을 든 성 바울과 열쇠를쥔 성 베드로이고, 청동문은 각기 믿음, 소망, 사랑을 나타낸다고 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 열쇠는 회개와 고해성사를 상징한다고 한다. 성당은 774년에 처음 지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부가 파괴 된 것을 1959년에 복원 되어졌다고 한다. 모짜르트는 이곳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죽어서는 장례 미사가 행해졌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0분 거리에 있는 짤쯔부르크 성에 올랐다. 1077년 게브하르트 대주교가 \*서임권<sup>서임권</sup>을 둘러싸고 독일 남부 황제파와의 전쟁에 대비 120미터의 언덕위에 성을 쌓았다고 한다.

성루에 올라서니 확 트인 시가지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그림처럼 다가왔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지막 장면인 트랩 대령 가족이 탈출하여 넘은 산이 바로 저산이 아닐까 하는 상상력도 발휘해 보았다. 가이드가 한쪽을 가리키면서 트랩 대령 저택의 촬영지라고 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그곳에서 마리아 수녀와 7명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나는 성벽에 기대어 40년 전 깜깜한 영화관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숨죽여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고 있는 나의 옛 모습이 떠올랐다.

짤쯔감마굿으로 이동했다. 이 지역은 알프스 산맥과 빙하가 만들어 낸 70여개의 호수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가는 길은 주위가 온통 눈으로 뒤덮인 설국이었다. 드문드문 나타나는 농가의 지붕처마는 땅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고 마치 두꺼운 목화 이불을 뒤집어 선 듯 긴 겨울을 지나고 있었다.

문득 영화 닥터 지바고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유리 지바고와 라라는 눈 속에 파묻힌 얼음궁전 같은 별장에서 불안한 동거를 하게 되고~~그 사이로 잔잔하게 흐르는 주제곡 '내사랑 어디에 *somewhere my love*'는 두 사람의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어 갔다. 장크트 길젠은 볼프강 호숫가의 아름답고 조용한 작은 마을이었다. 점심은 모짜르트의 누나 이름을 딴 난네 식당에서 먹었다. 마을 한편에 모짜르트의 어머니 생가임을 알리는 노란색 이충 건물이 보였다.

마을 곳곳에 모짜르트와 관련된 건물, 거리, 동상 등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정작 모짜르트는 이곳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안내자의 말에 실소를 금치 못 했다.

선착장이 있는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인적이 드문 호숫가는 철지난 장터처럼 황량하고 쓸쓸하기만 했다. 호수 저편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이국 異國의 바람인 듯 낯설게 느껴졌다. 곧 봄이 오면 이곳 볼프강 호숫가에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라 상상하면서 그곳을 떠났다. 할슈타트에 도착하니 시간은 늦은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명 地名에서 알 수 있듯이 할 hal은 켈트어로 소금, 슈타트 stat는 정착지, 즉 소금마을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고대부터 암염 생산지로 유명하였으며 지금도 소금광산이 판광코스라고 한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될 정도로 주변경관이 아름답다고 했다. 우리는 배를 타고 할슈타트 호수로 나갔다. 호수에서 바라본 할슈타트는 과연 동화속의 그림엽서였다. 해발 3천 미터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가 기슭에 그림 같은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정지된 한 컷의 \*스틸사진 같았다. 배에서 내려 호숫가로 난 좁은 풀목길을 걸었다.

공터 같은 작은 광장이 나타나고 그곳에는 국적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각기 여행의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었다. 길 건너 호숫가 성당의 첨탑은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 듯 했다. 날은 어두워지고 우리는 다음 행선지 슬로베니아로 향했다. ━



\*서임권: 임명할 수 있는 권리

\*스틸사진: 드라마나 영화, 광고필름 가운데 한 장면만 골라내어 현상한 사진.

잘라 내야  
더 잘 산다  
아이비-English ivy

이태용  
원예 교육가



### ▣ 공룡 그림책은 언제나 인기 만점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보고 식물을 심는 게 일이다 보니, 알맞은 그림책과 식물을 고르는 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림책은 만나게 될 아이들의 인원과 성별, 나이를 고려해서 정하는데, 무엇보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재미'이다. 우선 재미가 있어야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에게 읽어 주다보니 경험으로 조금은 알 수 있는데, '공룡'이 나오는 그림책은 대개 인기가 많다.

특히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인기 스타가 나오면 땀짓하던 아이들도 금세 집중한다. 그래서 나도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오는 그림책을 잘 읽어

준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시리즈 그림책도 있는데, 그 그림책들은 어느 권을 읽어 주어도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 시리즈 가운데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읽어 주는 이야기는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익룡 '프테라노돈'이 나오는 권이다. 아빠, 엄마, 새끼 프테라노돈, 이렇게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새끼가 무럭무럭 자라 아빠만큼 커졌다.

어느 날 밤 엄마, 아빠는 새끼가 잠든 사이에 멀리 떠나 버린다. 새끼가 컸으니 이제 독립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엄마는 차마 못 떠나고 눈물을 흘리며 새끼를 걱정하지만,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 잘 해낼 거예요.” 결국 아빠의 바람대로 새끼는 스스로 잘 해낸다.

그리고 사나운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지만 엄마, 아빠에게 배운 사랑과 지혜로 잘 헤쳐 나간다.

### ▣ 꺾꽂이가 잘 되는 식물

아이비는 내가 만나는 아이들과 빼뜨리지 않고 심는 식물이다. 잎이 예쁘게 생겨서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생명력이 강한 편이라 좋아한다. 한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아이비 잎에 독이 있으니 조심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식물을 심으면 어떡하느냐고 어머니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도 있지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안심을 시켜 드렸다.

아이비의 잎에 독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오히려 그 독성분을 이용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입에 넣으면 안 좋은 것이지

만지는 것만으로는 큰일이 나지 않는다. 이런 오해만 없다면 아이비는 집 안에서 키우기에 정말 좋은 식물이다. 덩굴식물인 아이비는 줄기를 길게 뻗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줄기 마디마다 새로 뿌리를 낸다.

'공기뿌리'라고도 부르는 이 뿌리는 줄기가 벽 같은 곳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줄기를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대부분 싫어한다.

어른들은 좀 더 긴 줄기를 가진 아이비를 갖고 싶어 하는데 비해 아이들은 줄기를 잘라 달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과감하게 가위로 줄기를 썩둑 잘라 주며 말한다. "잘린 아이비 줄기는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엄마, 아빠에게서 떠나는 거야. 이 줄기에서 새로 뿌리가 생겨나고 여기에 있는 잎들이 또 새로운 엄마, 아빠가 될 거야." 아이비는 꺾꽂이가 잘 되는 식물이다. 잎이 몇 개 달려 있는 줄기를 흙에 꽂아도 좋고, 물병에 넣어 놓아도 좋다. 심지어 줄기가 아니라 잎에 붙어 있는 잎자루만으로도 새로 뿌리를 낼 수 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어서 번식을 하는 일반적인 식물의 번식 방법과 달리 아이비를 비롯한 여러 식물들은 자신의 봄을 잘라서 새로 새끼를 만들어 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잘린 아이비의 줄기며 잎을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 모두 집에 가져가서 새로 뿌리를 내리겠다고 한다. 조그만 아이비 잎 끝에 달린 잎자루에서 새로 뿌리가 난 걸 보면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대견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저 조그만 잎사귀 속

에 '생명'이라는 대단한 힘이 들어 있어서 스스로 뿌리를 내고 살아간다는 게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기도 하다.

### ◀ 뿌리를 낼 그 힘을 믿자

그림책에 나온 새끼 프테라노돈은 엄마, 아빠와 헤어졌지만 씩씩하게 자신의 앞길을 개척한다. 어엿한 한 마리 공룡 몸을 하는 것이다. 까마득한 옛날에 살았던 공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약간은 냉정해 보이는 부모 자식 관계는 동물의 세계에 늘 존재한다.

꽤 오래전부터 쓰이다가 아예 신조어로 자리 잡은 '헬리콥터맘'이란 단어가 있다.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엄마'를 뜻한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늘 부족하고 불안해 보이는 존재이다. 그래서 멀리 보내지 못하고 늘 곁에 머물면서 간섭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같은 동물의 입장에서 프테라노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부모 눈에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이비의 잎자루처럼 뿌리를 낼 힘이 넉넉히 있다. 과감하게 잘라야 새로운 뿌리가 돋아날 수 있다고. 지금도 아이비는 내 곁에서 속삭인다. ■



## 아버님께 올리는 마지막 편지

박진성  
국광사 교도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지만 이제 손을 잡을 수도 안아드릴 수도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버님을 보내드린 지 49일째가 되었습니다. 한 더위도 물러가고 어느새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각나고 그리워집니다. 언제나 자식들과 손자들이 오면 피곤한 내색 없이 늘 앞장서서 경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곳에 얹힌 전설을 재밌게 이야기해 주셨고 연꽃이 피는 계절에는 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즐겁게 시간을 보내주셨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젠 이 모든 추억을 제 가슴 속 깊이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들 5남매를 남겨두고 교회를 시작하신 부모님. 그땐 철없고 어린 나이라 부모님이 보고 싶어 울기도 했었고 “우린 왜? 떨어져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에 뼈돌게 나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교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운을 잃지 않고 바른길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죠? 그때 어린 저희들을 잘 챙겨주지 못해 늘 마음 아프고 미안하다고 아버지 이젠 미안하지도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저희들 어디 가나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퇴직 후 아버지께서 덧

밭을 가꾸시며 계절마다 수확해 주시는 채소들을 먹으면서 늘 감사하고 고마웠지만 한편으로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밭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아버지 몸이 상하지 않으실까 싶어 만류한 적도 많았지만 항상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께서 주신 수확물은 세상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죠? “인생은 눈 한번 깜빡임과 같다. 그러나 항상 웃으며 살아라.”라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마음 밭 잘 가꾸면서 살겠습니다.

생전에 종단 발전을 위해 만다라 불사와 법의 제작하시고 온 정성을 다 바쳐 중생교화를 하시며 평생을 앞만 보고 부지런히 그리고 겸소하게 살아오셨던 아버지. 제 아버지라서 자랑스러웠고 존경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불효자는 다음 생에 다시 꼭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 이 생에 못다 한 효도를 마음껏 하고 살고 싶습니다. 평생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저희 5남매가 마음을 다해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 육친으로 맷은 정을 가벼웁게 거두시고 청정해진 업식으로 극락왕생 하시옵고 모든 애착 염송공덕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으시고 아미타불 극락세계 연화대에 왕생하시어 부디 성불하시옵소서. 음마니반메훔. ♪

\*혜암 종사(불교총지종 제12대 통리원장) 49재 매 아들이 낭독한 글

# 나는 기다립니다…



지현 전수  
자석사



나는 기다립니다…  
다비드 칼리 글  
세르주 블로크 그림  
안수연 역

- |   |   |
|---|---|
| 나는 기다립니다.<br>어서 키가 크기를<br>잠들기 전 나에게 와서 뽀뽀해 주기를<br>케이크가 다 구워지기를<br>비가 그치기를<br>크리스마스가 오기를 | 우리 아기를<br>곧 태어날 아기와의 만남을<br>아이들이 자라기를<br>휴가를<br>“미안해.”라는 한 마디를..... |
| 나는 기다립니다.<br>사랑을<br>영화가 시작되기를<br>그 사람과 다시 만나기를  | 나는 기다립니다.<br>아이들의 안부 전화를<br>“괜찮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br>이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
| 나는 기다립니다.<br>역장의 신호를<br>전쟁이 끝나기를<br>한 통의 편지를<br>“좋아요”라는 그 사람의 대답을                       | 나는 기다립니다.<br>초인종 소리를<br>아이들이 나를 보러 오기를<br>새 식구가 될 아기를               |
| 나는 기다립니다.   | 나는 기다립니다.   |

한 편의 시처럼 짧으면서 그림과 같이 감상해야 그 느낌이 오롯이 전달되는, 짧지만 여운이 긴 글~ 이 책의 특징이다. ‘어른을 위한 동화’ 란까. 작은 그림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권의 책 속에는 생명의 줄인 듯 빨간 실이 사람의 일생을 기다림의 연속으로 표현하고 있다.

책장마다 이어지는 빨간 실을 따라 가다 보면 너무도 빨리 마지막 장을 덮게 된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의 먹먹해진 가슴과 목에 뭔가 걸린 듯 애써 삼켜야 하는 호흡을 가다듬다 보면 그새 제법 많은 상념들이 스쳐간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늙어가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과정이 결국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이란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글 속에 등장하는, 어쩌면 현실에서 각자 삶의 마디라고도 여겨질 장면에선 잠시 머뭇거리며 ‘이 시기에 난 무엇을 기다렸던가?’ 하며 멀림과 설레는 감정을 소환해 지나 온 시간을 돌아보고, 아직은 당도하지 않았지만 나 역시 머지않아 맞게 될 시간에 또 어떤 기다림을 할 것인지 막연히 기대도 하게 되는.....

한편으론, 이렇게 단 몇 줄로 요약정리 될 수 있는 인생인데 영원할 것처럼 서로 상처주고 상처 받으며 욕심을 내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에 이르러 잠시나마 깊은 반성도 하였다.

여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다. 그림과 글은 모두 정말 간단명료하지만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더 많은 기다림과 의미가 여백을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하는 감상이 들 정도로 누구나 태어남과 동시에 쉼 없이 달려야 하는 인생길에서 그림에도 여유로이 살아보라는 무언의 토닥거림을 여백이 말해주는 것 같았다.

기다림은 마침표가 없다. ‘끝’이 아닌 ‘끈’으로 책이 마무리 되며 풀어진 실타래가 하나로 묶였지만 어느 인생에선가 실타래는 다시 풀어져 또 다른 삶의 여정을 이어가리란 것을 안다.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알기에....

뜨거운 여름을 지내면서 어쩌면 우린 부단히 가을을 기다렸을지 모른다. 그렇게 기다리던 가을이 성큼 다가와 벌써부터 마음을 혼들어댄다. 이즈음에 나와 당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다림이 기다려지는 계절이다. ■



## 홍차의 유래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교도

홍차의 유래는 다양한 설이 있으며 그 중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홍차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중국 녹차가 서양으로 배를 통해 운반되는 과정에서 습기로 녹차가 발효 되어서 홍차와 같은 특징을 가진 차가 되었고 이러한 홍차에 길들여진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입에 맞게 제조법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차를 좋아하던 중국인들이 다양한 가공을 해서 마시다가 우연히 다른 차와 비교되어 홍차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차를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과 상인들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었고 제일 처음 네덜란드인이 동양에서 구입한 차를 포르투

갈 상인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배에 실어 네덜란드로 보내면서 이것이 동양에서 유럽으로 차가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에 네덜란드는 프랑스와 독일로 차 무역을 시작했고, 18세기 말에는 영국으로 전해지면서 영국이 유럽전역에 차를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로는 영국에 처음 홍차가 보급된 것이 1600년 중반에 스페인의 케瑟린 공주가 영국 왕실에 시집갈 때 설탕과 홍차를 가져가 왕실에서 마시기 시작해 이후 영국 왕실과 귀족들이 즐겨 마시던 음료가 되었고 그 이후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제배 하면서 싼값으로 차를 수입하여 일반 서민들도 차를 즐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처음 중국으로부터 홍차를 수입하던 시기에는 중국이 차를 판매한 대금을 은으로만 받길 원했고 점차 차의 수입량이 늘면서 무역불균형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은 유출은 유럽 전체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차의 대금을 중국에서 아편을 팔 대금으로 지불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과의 마찰로 아편전쟁이 일어났으며 전쟁에서 진 중국은 홍콩을 100년간 영국이 사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후 영국은 중국이 아닌 인도의 아삼지역에서 중국 차종을 발견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1880년대 이후에는 중국 홍차의 수입량을 줄



여 갈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설들로 홍차는 중국에서 만들 어졌지만 여러 나라로 전파되어 지금은 전 세계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인, 영국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차의 종류는 생산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계 3대 홍차라 불리는 인도의 다즐링, 스리랑카의 우바, 중국의 기문이 있습니다. 인도 다즐링은 머스캣 포도향으로 홍차의 삼째인으로 부르며 개성이 뚜렷하여 다른 나라의 차보다 맛과 향에 있어서 강한 편이고, 스리랑카의 우바는 붉은색의 탕색과 상큼한 향을 가지며 고산 지역 특유의 야생화 향기와 풍미가 있고, 중국의 기문은 잘 익은 과일향과 꿀향에 탄닌과 카페인이 적어 떫지 않고 담백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홍차에 밀크를 넣어 마시는 밀크 티와 홍차의 잎에 꽃이나 과일을 첨가하여 만든 얼 그레이 차, 홍차의 황금이라고 하는 스리랑카 실론지역의 홍차인 실론타<sup>ceylon</sup>가 있습니다.

홍차<sup>紅茶</sup>라는 말이 동양에서는 홍차의 우려진 색이 붉은 빛을 띤다 하여 부르고 있지만 차를 처음 접한 유럽 사람들은 찻잎이 검은 색을 띠기 때문에 블랙 티<sup>Black Tea</su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홍차와 블랙 티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홍차는 녹차와 달리 고온의 끓는 물(90도)을 이용해야 잘 우러나게

되고 유효성분이 추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차는 시각적인 효과에 촛점을 두기에 홍차 잔은 둥글게 펴지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탕색을 보기 위해 주로 흰색 도자기로 만든 찻잔이 많습니다.

현재는 세계인들이 마시는 차의 80프로는 홍차이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홍차보다 녹차를 즐겨 마신다고 하며, 차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는 중국이며 홍차를 많이 만드는 나라는 중국,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입니다. 그리고 최대 생산지는 단연 인도입니다. 참고로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인도이며 중국, 러시아, 터키, 일본, 영국 순입니다.

지금까지 홍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즐기는 차 뿐만 아니라 다른 차를 마실 때에도 그 차에 대해 알고 접하게 된다면 조금 색다를 것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도 차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것도 다인<sup>茶人</sup>으로서 맛과 멋, 그리고 즐거움까지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 도약

법일 정사  
수인사주교



날줄 모르는 새가 한 마리 있었다. 그 새는 다른 새들은 하늘을 날아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닭처럼 땅 위를 걸어다니거나 기껏해야 총총거리며 뛰어다녔다. 그런데 그 새가 어쩌다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알을 품게 되었다. 때가 되자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 되었다. 그 새끼는 알 속에서부터 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얼마 후 새끼 새가 양어머니에게 물었다.

“저는 언제쯤 날 수 있을까요?”

날지 못하는 새가 말하였다.

“다른 새들처럼 계속 날아 보도록 해라.”

날지 못하는 새는 새끼 새에게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벼둥거리며 둉지에 올라서는 방법조차도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다. 새끼 새는 양어머니가 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은 자신을 알에서 부화 시켜 준 양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엇갈렸다.



“그분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알 속에 있을 거야.”

새끼 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새끼 새는 또 이따금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

“나를 부화시킬 수 있는 새라면 분명 나는 법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다만 시간문제이거나 내가 아직 노력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일거야.”라고 속으로 말하곤 했다.

그대여, 운 좋게 참다운 스승을 만나 그동안 잘 배웠는가. 그리하여 운 좋게 알에서 깨어났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도약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지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장 그대 스승의 곁을 떠나라. 스승의 품에서는 도약을 이룰 수 없다. 오직 그대 스스로 할 그대의 뜻인 것이다. !



# 사명대사 열반 409주기 추모대제

여순애  
자석사교도

2019년 9월 24일 오후는 햇볕이 따사로웠습니다. 부산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 추모대제가 거행되었습니다.

사명호국광장은 엄숙하고 아담하여 행사를 진행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사찰에서 합창단 100명이 모여 사명대사 추모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총지종 만다라 합창단은 푸른빛 한복을 입고 참석하였는데 사진 속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여 깨끗한 마음까지 들게 했습니다. 난 “이 행사가 나를 초대하였다.” 할 만큼 감명 깊었습니다.

첫 순서로 호국 영령들을 위한 영산대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사원에 선 볼 수 없는 광경이라 유심히 보았습니다. 육법공양을 하는 등 다양한 행사 가운데 사명대사 행장은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사명대사의 속성은 풍천 임씨요, 법명은 유정, 자는 이환, 호는 사명이십니다. 서산대사를 스승으로 모시었습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의 격문을 받고 7백여 명의 승의병을 모집하여 순안으로 나아가 평양탈환과 삼각산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척위장군 행보분위상호군으로 품수되셨습니다.

머리를 기르면 삼군의 통수권을 맡기겠다는 제의를 사양하시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 성을 쌓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선조 37년 일본으로 건너가 덕천가장과 담판하여 다시는 침범하지 않을 것을 조복 받고 양국 300년 평화의 기틀을 잡아 놓고 많은 문화재와 동포 3천여 명을 살려서 부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선조는 이 공로로 대사를 이순신 권율과 함께 선무일등공신으로 봉하시고 아울러 영의정에 명하니 거듭된 사양에 불구하고 부득이 3일 동안 영의정 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7세 광해군 2년 8월 26일 대중을 모아놓고 임종설법을 하신 후 열반에 드셨습니다.

밀양에 가면 사명대사 표충비가 있습니다. 경남 유형문화재 제 15호로 지정된 표충비입니다 영조 18년에 사명대사의 출생지라는 인연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땀 흘리는 비”로 유명합니다. 땀을 흘리는 시점이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를 전후로 한다고 합니다. 이는 나라와 겨레를 존중하고 근심하는 사명대사의 영감이라 하여 신성시 됩니다. 오늘 사명대사의 추모대제에서 추모가를 불렀던 것이 너무나 뜻깊었습니다. 이 가을에 승병들의 업적을 한번 더 되새겨 봅니다.▲





일군의 잡밀경전이 수입된 3~4세기를 초기 중국 밀교의 전반기라고 한다면, 후반기에 해당하는 것이 당나라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즉 7세기 후반에서 8세기에 걸쳐 서로 이어 입장한 보리류지, 가범달마, 보사유 등, 혹은 반대로 입축<sup>入竺</sup>한 현장이나 의정 등의 사람들에게 다수의 밀교경전이 번역된 시기이다.

특히 특정한 존격, 예를 들어 정상적인 관음이 아니라 열 한 개의 얼굴, 천 개의 손을 가지는 등 구제의 위력을 강조하는 초인적인 관음이다 수, 맞물려 등장했다. 이를 '변화관음'이라고 통칭한다.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에 걸쳐 관음보살의 위력, 공덕을 확대 해석한 경전이 다수, 게다가 집중적으로 번역된 것은 밀교사적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중국에서, 어느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가진 다라니경전이 여러 승려들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6세기 후반과 7세기 전반에 걸쳐, 인도에서 관음의 변화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존격군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웬지 유행하지 않았지만, 현장삼장의 대당서역기에도 언

급이 많은 타라<sup>tara</sup>여존도 같은 단계의 존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승불교와는 달리 밀교계의 부처는 먼저 특정 도상이나 이익을 갖춘 존격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내용과 공덕을 지닌 다라니(또는 신주)가 생겨나고 그것이 나중에 존격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명왕처럼 밀교 특유의 부처의 경우 더 이해하기 쉽지만, 변화관음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경전에는 그 다라니나 신주와 관련하여 20종 이익 등 다양한 공덕, 이익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전이나 다라니의 공덕을 많이 열거하는 것은 이미 약사여래나 아미타여래 관계의 경전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의 서원과 그것을 받아 성불을 보장하는 수기는 이중 구조가 큰 특색인데 반해, 다라니·신주의 위력과 공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변화관음 경전에서는, 서원이나 수기와 같은 대승적 요소는 소멸되고, 오히려 그 부처의 위력을 중요시하게 된다. ─



# 탐욕

## 貪 慾

貪 탐낼 - 탐

慾 욕심 - 욕

- ① 사물事物을 지나치게 팀하는 욕심(慾心)
- ②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그것에 집착하는 것
- ③ 삼구(三垢)의 하나. 또는, 삼독(三毒)의 하나

탐<sup>贪</sup>은 갈애(渴愛, 산스크리트어: trsn) · 욕(欲, 탐욕의 줄임말로서의 욕) · 애<sup>愛</sup> · 애탐<sup>愛貪</sup> · 탐독<sup>貪毒</sup> · 탐애<sup>貪愛</sup> · 탐욕<sup>貪欲</sup> 또는 탐착<sup>貪著, 貪着</sup>이라고 한다.

욕(欲: 원함, 욕구, 희망, 하고자 함)에는 선<sup>善</sup>과 상응한 욕<sup>欲</sup>인 선욕<sup>善欲</sup>과 악<sup>惡</sup>과 상응한 욕<sup>欲</sup>인 악욕<sup>惡欲</sup>이 있다.



선욕<sup>善欲</sup>은 정진<sup>精進, 劍</sup>의 마음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악욕<sup>惡欲</sup>들 중에서 타인의 재물<sup>財物</sup>, 즉 돈 등의 재화나 공적, 명예 또는 지식을 빼앗거나 가로채거나 도용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욕구, 즉 불변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스스로를 상응시키는 바른 노력(정정진) 없이 쉽게 얻으려는 욕구가 곧, 불선근 이자 근본번뇌 중의 하나인, 탐<sup>贪</sup>의 마음작용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세 가지 독<sup>三毒</sup> 중의 하나로 탐욕을 꼽는다. 삼독<sup>三毒</sup>이란 제일 먼저 탐욕이고, 둘째 성내고 성미를 부리는 것이고, 셋째 어리석음이다.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은 탐욕에서 비롯된다. 탐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연 조급해지고 난폭해져서 성내고 짜증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점점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을 표현하여 “저 수미산을 모두 금으로 화<sup>化</sup>한다 해도 단 한 사람의 탐심도 채우지 못한다.”라고 했다. 부처님께서는 또 탐욕은 불길 같아 모든 것을 태우고 만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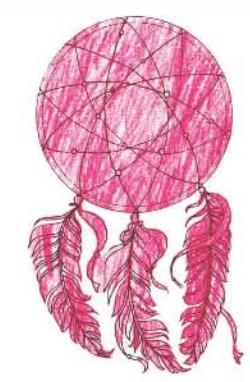
모름지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모든 사람이 고루 행복해 질 것이다. ♡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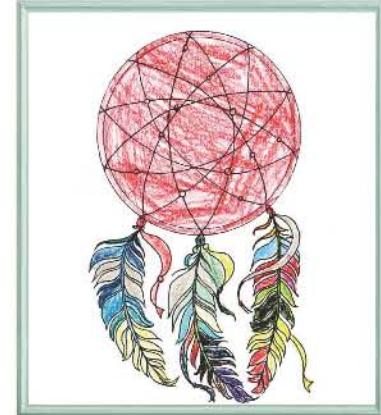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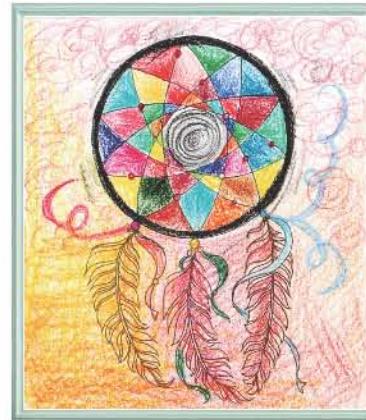
지난 호 독자 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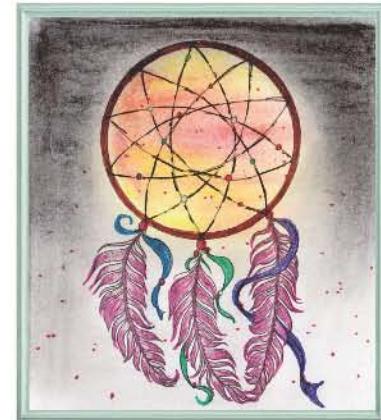
▲ 실지사 김윤아



▲ 실지사 김윤호



▲ 철원 성지숙



▲ 실지사 이시원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불교총지종 종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성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조불공	매월 월조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매년 양력
신년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해탈절(우란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고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 불교총지종 연중 불사

###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국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음흉야오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 월조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 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령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b>서울, 경기교구</b>			
관성사	030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승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11번길 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릉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 충청, 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일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황금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령4길 266-78	(043)833-0399

### 대구, 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학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개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 부산, 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82-1 301호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성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증 홈페이지에 언제글 있습니다 \*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증

###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자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감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윤서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영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일심정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정재영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미영	한영희	허지웅



- 불교총지증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 행 일** 총기 48(2019)년 11월 1일

**발 행 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의

**발 행** 불교총지증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어느덧 11월이 되네요.  
한해가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부산스러워면서도  
쓸쓸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감정과 일들이 모여  
일상이 되는 듯 합니다.

별탈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11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김장도 해야하고,  
월동 준비도 해야하고…

2019년에 계획했지만  
미처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봅니다.

11월호



늙어서 덕행이 있음은 기쁜 일이고,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도 기쁜 일이다.  
지혜의 빛을 빛하는 것은 기쁜 일이다.  
악으로부터 벗어남은 더욱 기쁜 일이다.

- 법구경 -